

승·재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 결성

6월 22일 조계사서 창립식

승·재가가 함께하는 자발적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가 6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선언식을 개최한다.

'붓다로 살자'는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장 도법 스님과 선본사 주지 덕문 스님, 불교신문사 주간 일감 스님 등 출가자와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사찰 종무원, 불교시민사회와 신행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남일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래 조계사, 봉은사 등지에서 여섯 번의 월례모임을 개최해 왔다.

22일 열리는 창립식에서는 지도법사 도법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박재동 화백의 '인간 붓다 이미지 작업', 기념영상 상영, 김선우 시인의 축시, 원로 스님의 격려 인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교수아사리

이시대 승가상 논한다

22일 1차포럼 개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이 시대의 승가상'을 주제로 '2013 조계종 교수(교육)아사리 제1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희철스님(교수아사리)이 '시대에 부응하는 수행자, 시대와 소통하는 종교인'을, 자현스님(교수아사리, 월정사 교무국장)이 '대처육식의 문제와 승가의 위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 참가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02)2011-1817 신종일 기자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공모

조계종 종무원 문화부(문화부장 진명스님)는 6월 21일까지 불사사랑캠페인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공모를 실시한다. 참가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찰도서관 신청 동기 △활용될 공간 설명-사찰도서관 운영 연혁 △사찰도서관 운영 및 관리 계획 등을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 2013년 부처님글사랑 사찰도서관으로 선정되면 600만원 상당의 불서 및 현판이 기증된다. (02)2011-1772 정혜숙 기자

우수 포교사례, 종단 차원 육성

조계종 포교원, 포교 각 분야 사업 지원 나서

"현재 공무원을 비롯한 인구 순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물량 공세에 비해 포교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교원 지원에 힘입어 무료 템플스테이와 워터 제공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떠나갈 것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포교원 공모사업 결과발표회'에서 '행복도시 행복도량' 사업을 소개하는 영평사 관계자의 발언이다.

조계종이 포교·신도단체와 지역포교 3개 분야의 우수사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이날 선정된 사찰과 단체는 총 14곳으로 1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포교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포교단체 분야에 △국제포교사회의 '이주민 한국문화체험 투어' △불교여성개발원 '부처님과 함께 밝아지는 내마음' △불교상담개발원 '가족소통을 위한 'Buddha Image 만나다' 과

정 △파라미타 '전통사찰에서 익히는 청소년 심성개발'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350만원이 투입되는 불교상담개발원의 'Buddha Image 만나다' 과정은 만다라를 통해 자녀와 부모간 쌍방향 대화를 통해 소통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함께 만다라를 그리며 청소년 인성

단체·지역포교 3개 분야

5일 공모선정 14곳 발표

최대 800만원 지원 예정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도

발달과 가족간 대화 등을 진행한다.

지역포교분야에서는 △완도 신흥사 '장보고 아카데미 유정소년 감감' △김천 직지사 '천불의 미소와 함께 하는 김천 스카우트' △송광사회복지관 '한여름밤의 영상음악제' △보령청소년문화의집 '도예를 통한 불성기르기' △세종 영평사 '행복

도시 행복도량' △양산 통도사 '불교전통 문화 체험'가 우수사업으로 채택됐다.

이중 세종 영평사 '행복도시 행복도량'은 세종시 일대 이주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북카페, 워크숍 공간 제공 및 무료템플스테이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행단체에는 △교정인불자연합회 '전국 교정불서 보급' △한한사불자연합회 '홍보 및 조직강화' △조계종 메트로범우회 '맞춤포교 인프라구축'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메트로범우회 '맞춤포교 인프라 구축'의 경우 지하철 역 인근 사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하철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절시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함께 벌인다.

포교원은 향후 선정사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공모사업을 계기로 지역과 소통하고 사찰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월 28일 베를린 자유대학서 진행된 사찰음식 강연회·시식회에서 독일학생들이 사찰음식을 맛보고 있다.

한국 사찰음식, 독일서도 호평

문화사업단, 베를린서 '사찰음식의 날' 행사

한국 사찰음식이 독일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2013 베를린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과 광부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베를린 시장부가 초청해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사찰음식뿐 아니라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등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며 현지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일정 첫 날인 25일에는 베를린 시에 위치한 세계의 정원에서 연등축제를 거행했다. 27일에는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를 방문해 교수진과 학생 70여 명에게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스님의 강연과 시식회를 열었으며, 28일에는 메인 행사인 '한국 사찰음식의 날' 공식 만찬이 진행됐다. 만찬에는 파독광부협회와 한독간호협회, 베를린 한인회 등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신종일 기자

동국대 참여 '연 센터' 사실상 폐업... 파장 우려

종관위 3일 문제 제기

감사 청구 및 보고 요구

동국대 의료원(원장 이진호)이 스포츠앤스파코리아(이하 스파코리아)와 손을 잡고 지난해 10월 서울 목동에 개원한 '라이프센터 연(이하 연 센터)'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연 센터는 출입 엘리베이터부터 봉쇄된 상태. 이미 5월 28일부터는 단전 조치가 들어갔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부된 공지문에 따르면 연 센터가 미납한 전기료는 4천 180여 만원. 여기에 수도세 2천여 만원과 관리비 2억여 원(월 1천1백만원) 가량이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현재 '연 센터'의 상황에 대해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동국대 의료원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연 센터는 단순임대해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라며 "스파코리아 측의 운영이 파행으로 가면서 고가의 의료기기를 방치할 수 없어 절수했다"고 해명했다.

이러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운영하거나 법적 대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목동 라이프 센터 연 1층 입구. 엘리베이터가 봉쇄돼 있다. 동국대가 스포츠앤스파코리아와 손잡고 진행한 복합형 메디칼센터였으나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다.

하지만 '연 센터' 문제는 단순한 의료원만의 과실이 아닌 불교계 내부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덕문)는 6월 3일 열린 회의에서 '동국대 의료원 목동분원'에 관련된 사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위원장 장명 스님은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연 센터 사업을 지적했다. 장명 스님은 "이미 일반 언론들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최종 의사 결정 전에 충분한 검토 기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연 센터 사업은 동국대 의료원과 법인사무처를 거쳐 이사회에서 사업을 보고하는 선에

서 추진됐다. 의사 결정에 허술함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연 센터' 사태가 단순한 사업 실패로 보기에 불교와 동국대가 가져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 400명에 이르는 정회원들 대부분이 '동국대 의료원'이 운영하는 '고급 라이프센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꺼이 자금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대응에 대해 종관위원장 덕문 스님은 "현재 이사회 내 감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기 바란다. 보고 검토 후 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주소찾기 어려워 지명 바뀌? ... "궤변"

대불청 등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

대한불교청정회(회장 전준호)와 박호석 지명연구가, 정동채 문화행정전문가(前 문화부 장관)등 63명은 6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도로명주소법 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대불청은 "전통문화가 배어있는

법정지명을 포기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주소 찾기가 어려워져 바꾼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새 도로명주소법은 헌법제9조에 명시된 국가의 전통문화보존의무에도 명백히 반하며, 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나 기자

이번 여름은 삼선을 제대로 배우봅시다 6월간의 깨달음

전문참선수련회

입재부터 회향까지 참선을 40년이상 꾸준히 해온 스님이 직접 화두 참선을 지도한다

참선	차수	날	짜	선택	장소
청소년 대학생 일반	수련7차A	6. 28	- 7. 3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7차B	7. 19	- 7.24	무단식	활인선원
	수련8차	7. 26	- 7.31	단식	활인선원
	수련9차	8. 15	- 8. 20	단식	활인선원
5박 6일 단기승가	30일 50일 100일	수련10차	8. 23	- 8. 28	단식 원명선원

곧바로 강화되는 체질단식 특별회비우대-개산5주년기념

행복명제작소 중앙선방 활인선원 ☎1644-5266

제주 원명선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in.net 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암으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시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종 정	총무원장 유 심
총무부장 정무 (부산 해운대구 청운암)	원 로 원 장 대웅 (부산 진구 봉주암)
재무부장 무여 (부산 금정 법전사)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규정부장 정학 (부산 진구 수도암)	비 구 니 회 장 해명 (부산 진구 백광사)
교육부장 묘향 (부산 수영 반야라마)	비 구 니 총 무 무여 (011-9509-1560)
감사부장 청타 (부산 수영 관음사)	불교전통문화원장 소현 무향
문화부장 청오 (대구 달서구 흥주암)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포 교 단 장 덕인
	포 교 단 총 무 법광 (무량정사)

종단고문번호사 허종범 (부산) 종단사무장 박문비 010-4566-4504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공동 봉행위원장 해명, 수연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관음정사 (부산역) 총무국 : 051)468-5657 / 사무장 010-4566-4504 총무원 051)442-5658

인터넷주소 http://jogyejong.kr 팩스 051)442-5659

신라불교미술관
● 불교문화재 기능보유자 제 12-01-01호
● 2010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미술부문 수상
● 불상, 탕화, 개금, 벽화, 단청
● 조성장소 : 부산진구 초읍동 (무상 010-3557-6250)

수봉전자 (불교음향기특수제작)
● 선거음향, cctv, 노래방, 야외음프
● http://www.kukjeav.com
● 장소 : 부산 진구 부전동 29번지(부산전지종합시장 1F 7호문)
● 수봉 010-3832-8855

불교승복 원복사
● 가사, 장삼, 두루마기, 손누비, 모시끼개, 승복일절
● http://www.wonboksa.co.kr
● 장소 :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276(구, 고속터미널 앞 미남로 약국 2층)
● 금봉 010-3572-4400